

신라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관광객들이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 4박 5일 제주여행 중국관광객 '신종 코로나' 확진 이후...

# 혹시 여기에도?... 불안감 최고조

확진 중국인 다녀간 면세점 등 임시휴업 돌입 인기 명소 누웨마루거리 관광객 발길 끊겨 한산

3일 오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누웨마루거리는 평일·주말 관계없이 면세점, 화장품, 옷, 신발 등 쇼핑을 하려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중국인이 나타나면서부터 누웨마루거리를 찾는 관광객이 줄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1일 제주 여행을 마친 후 중국으로 귀국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4박 5일 동안 누웨마루거리 일대에 주로 머무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리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였다.

평소 중국인 보따리상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인근 신라·롯데면세점 두 곳은 A씨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회사 대응 매뉴얼

에 따라 2일 오후부터 임시휴업에 돌입했다. 이날 소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은 휴업 사실을 모른 채 면세점을 찾았으나 입구에 설치된 휴업 알림 문구를 보고 발걸음을 돌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인 확진자 방문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회사 자체 회의를 통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와 고객·직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재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가 머물렀던 누웨마루거리 내의 한 호텔로 들어가자 방역을 했는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체크인 아웃 시간대인 데도 로비·호텔 입구 등에 손님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해당 호텔 지배인은 "1일 밤에야 제주도청으로부터 중국인 확진자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듣고 조사를 받았다"며 "현재 기존 투숙객들을 다른 숙소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숙객 이동을 마치고 도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임시휴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연동의 한 약국도 2일 오후부터 임시휴업 상태다.

제주도는 "A씨의 딸과 통화에서 '해열진통제는 제3자에게 주기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으나, A씨가 4박 5일간 제주도내 곳곳을 누볐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민들과 내국인관광객들의 불안감을 갈수록 높이고 있다.

도민 고모(44)씨는 "쉬는 날이면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을 가는데,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 무서워서 어디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김현식기자 ik012@ihalla.com

## 도소방본부, 올해 111명 공개 채용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 공무원 11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선발 인원 중 61명은 신규 공채이고, 나머지 50명은 경력 공채이다. 소방공무원 응시자들은 제1종 운

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규 공채에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력 공채에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채용 전형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체력시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4차 면접시험 후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다. 응시 희망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해 지원서를 내면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개학 앞둔 교육현장 신종 코로나 '초긴장'

국제학교 4곳, 중국 방문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일선학교 일정 취소·어린이집 원생 미등원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일반 초중고보다 일찍 개학을 맞은 국제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제주도내 교육 현장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모두 4곳으로 이날 기준 모든 학교가 개학에 들어갔다. 도내 모든 초중고가 3월에 개학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일찍 교육과정을 시작한 셈이다.

개학을 맞은 학교는 신종 코로나 방역으로 분주해졌다. 도내 국제학교 전체 학생(3947명)의 4.7%(184명)가 중국인이고, 개학 전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을 통해 신종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 격리도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신종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후베이성 외에 중국을 방문했거나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도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도내 한 국제학교 관계자는 "중국에 있다가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과 접촉한 경우에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학부모 등의 협조를 구했다"며 "등교 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영어교육도시 내 다른 학교와의 연계 활동도 중단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에 예정됐던 학교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남녕고등학교는 이날부터 14일까지 2주간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이를 진

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돌봄교실(101곳)과 방과후학교(42곳)를 정상 운영 중인 도내 학교에선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선 등원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어린이집 505곳에 다니는 전체 원아(2만5000명) 10명 중 1명(2757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신종 코로나 감염이 우려돼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않는 원아의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도교육청도 3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새 학기 개학 연기나 휴업 필요성은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전용면적 16㎡·26㎡·43㎡ 총 402세대 공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첨단과기단지, 제주시 월평동)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은 6층 규모로 전용면적 16㎡ 88세대, 26㎡

154세대, 43㎡ 160세대 총 402세대로 구성돼 있다.

JDC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인 'JDC 제주첨단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교원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특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으로 입주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기간이 7년 이하이거나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포함된다.

이번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4일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며, 접수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다.

조상윤기자

## 돈 있어도 못 구한다는데... 마스크 1만5000개 기부 '화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마스크와 세정제가 등이 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한 시민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마스크 1만5000개를 기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3일 제주시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한 중년 남성은 지난 1일 지인과 함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를 만나 편지와 성인용 마스크(KF94) 1만개를 전달했다. 또 이 남성은 택배로 아동용 마스크(KF80) 5000개를 제주시에 기부했다.

이 남성은 편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도 써보지 못하고 위


호 "신분은 밝힐 수 없지만 다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시기에 누군가 이런 기부를 했다고 알리는 것이 우리 사회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나눔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협의회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으로 마스크가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해 독자의 뜻이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이번 독자의 마스크 기부는 소의된 이웃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고마워했다.


이상민기자



# 2020년도 세화고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이임회장**  
**박우철**(20기)



**취임회장**  
**오순금**(21기)

▶ 연락처 : 사무처장 정문후 010-8632-7482  
사무국장 김제옥 010-3697-9762

**일시** 2020년 2월 8일(토) **총회**: 오후 5시 이·취임식: 오후 6시


**장소** 메종클래드호텔(구.그랜드호텔) 2층 크리스탈홀

**역대회장**

- 제1대 회장 (故)김원호(병조) (1기/1976-1981) - 제8-9대 회장 양승필 (16기/2012-2015)
- 제2대 회장 정인삼 (1기/1982-1993) - 제10대 회장 오홍식 (18기/2016-2017)
- 제3-5대 회장 강승훈 (3기/1994-2002) - 제11대 회장 김정명 (19기/2018)
- 제6-7대 회장 김광조 (5기/2003-2011)

**자랑스러운 세고인**

백기복(19회) 학술 부분	김문규(26회) 2018년, 11대 회장
김성철(19회) 교육, 봉사 부분	김문규(26회) 2018년, 11대 사무처장
부재호(29회) 예술 부분	부석배(30회) 2018년, 11대 사무국장
	고영빈(25회) 비엔콜프회장



## 세화고등학교총동창회 이임회장 박우철 · 취임회장 오순금